

역선택 논란 수습한 국민의힘… 본선경쟁력 갈등 불씨 여전

선관위 만장일치로 경선룰 절충 여론조사서 본선 경쟁력 질문 윤석열·최재형, 선관위 결정 환영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본선 경선 규정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3차 컷오프에서의 본선 경쟁력 문항 추가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선룰은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한 안이다.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리기로 했다. 2차 컷오프는 기존과 같게 여론조사 70%와 당원 투표 30%를 반영한다. 3차 컷오프에선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묻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말을 추가하기로 했다.

본선 경쟁력 측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후보간 유불리에 따라 또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경선

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선관위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갈등 상황이) 일단락 지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심한 흔적이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3차 컷오프 본선 경쟁력 조항에 대해선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거고 정해진 룰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일 선관위가 주최한 공정선거 서약식에 불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홍준표·하태경 의원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홍 의원이 입장문에서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경선에 집중하는데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공정을 잃은 듯한 룰이 나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선 경쟁력 문항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본선 경쟁력 문항 같은 경우에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얼마나 시달렸나.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놓고 후보간 의견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文 “월별 수출액 최고기록… 노고에 감사”

6개월 연속 수출액 최고 기록 경신 ‘위드 코로나 대책’ 첫 공식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증가한 8월 수출 동향에 대해 6일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 증가 현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 기계·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 산업이 선전하고,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 놀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선산업 성과와 재도약 전략을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인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가면 우리 수출 산업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세와 별개로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 대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 이상’ 기록을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방역 체계’, 즉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만난 윤석열 “정치 공작 프레임”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 공작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상시해 온 사람들이 프레임에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다만 양측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당내 현안이나 정치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이 됐기에 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당 구성원에 대한 정기 국회 과정에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당시 후보)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파악한 것으로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전달 받았다는 공조적 당사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되는 것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경선 룰이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경쟁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를 자주 뵈기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오늘 인사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듣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와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을 처리한 자체가 정치 공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후보 검증단 추진 여부와 관련 “당이 장기적으로 본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드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단과 관련 “우리 후보나 당에 대해 제기되는 정치 공세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文,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는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꽃다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제외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

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라는 꽃말이 있는 데이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의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달했다.

이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꽃다발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피,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의미의 카모마일, ‘안정’을 뜻하는 소국으로 꾸며졌다.

문 대통령은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이라는 의미의 천민국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